

함께 참여하는 강조주간이 되길

김 소 현

매년 실시되는 안전보건강조주간은 우리나라 안전문화가 사회 저변에 정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의 안전보건강조주간을 돌아 보면, 행사내용이나 시스템 등이 매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새로운 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시관입니다. 안전보건관련업체에서 새롭게 개발된 신상품을 많이 내놓아 우리나라의 안전시설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전시 품목이 안전공단의 정보관련 부수와 안전보건관련업체의 신상품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시관이라 하면 다양한 소재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년 공단과 안전보건관련업체의 신상품만을 일괄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전시를 위해 많은 계층과 기관의 참여가 있어야겠습니다. 즉, “정보관, 안전보건 보호구관, 안전보건 신상품관(초, 중, 고, 대학생들이 내놓은 안전보건관련 개발품 포함), 안전문화관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성 있는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대회입니다. 예전에는 안전보건

개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회였는데, 지금은 보여주는 행사로 전락하고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은 모든 안전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관에서의 한정된 행사만 시행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린 새싹들에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대회(그림, 노래, 연극 등)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경진대회” 등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공단 주관의 행사가 가장 크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기간동안 행사장을 찾는 이들은 매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집중된 행사보다는 부산, 대구, 울산, 구미 등 지방을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조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발전된 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로 만들어 범 국민적,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